

회원농가의 수익증대에 앞장서는 해남지부



◀ 해남지부 식구들. 좌로부터 차달준 회원, 이경태 부지부장, 노정자 간사, 박주남 지부장, 이춘배 회원

취재 : 조진현

땅끝 해남지부에 찾아오는 양돈농가들은 많은 경제적 혜택을 입게 된다.

개인 농가로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낮은 단가의 사료, 약품, 기자재 심지어 출하까지 매우 우수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배합사료의 경우 공개 입찰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된 값싸고 품질 좋은 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사료나 약품, 기자재 등을 구입하면서 지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없다. 지부 회비도 없다.

요구하는 것 없이 베풀기만 하는 지부가 바로 해남지부다.

단칸 컨테이너 박스에 지부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회원 농가들에 대한 혜택만큼은 어느 지부보다도,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해남지부. 29명의 회원들이 지부장을 중심으로 튼튼한 믿음의 고리를 엮고 있는 실속있는 해남지부를 둘러보자.

전국 양돈인들을 위해 협회가 존재하듯이, 지역 양돈농가들을 위해 우리 협회 지부, 지회가 있다.

협회는 양돈농가들의 권익보호와 경영안정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우리 양돈인들 스스로 협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규모가 크고,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우수한 지부일까? 회원농가들에게 부담만 되고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지부가 있다면 이미 존재가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남지부는 가장 우수한 지부 중 하나다. 회원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 또한 회원들에 대한 혜택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사료, 공개입찰을 통한 투명한 공동구매 실시

'땅끝포크'로도 알려진 땅끝마을 해남지부는 29명의 회원들이 오랜 기간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차곡 차곡 내실을 쌓아온 우수한 지부이다.

해남지역 총 40여 호의 양돈농가 중 전업화된 거의 모든 농가들이 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해남지부는, 10여년전부터 종돈부터 기자재, 약품, 배합사료에 이르기까지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공동구매에 전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점은 눈여겨 볼 만 하다. 모든 회원들이 한 종류의 배합사료를 쓰도록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어느 회원이든 지부든 공감할 것이다.

회원들이 연간 사용하는 사료량은 총 1만5천톤 가량. 지난 몇 년 동안은 D사의 사료를 사용해 오다, 지난 해 12월 공개입찰을 통해



▲ 해남지부 박주남 지부장

더 좋은 조건으로 K사료 바꿨다. 사료가 바뀌면서 일부 회원들의 불만도 당연히 있겠지만, 전체의 의견에 회원들이 따라준다.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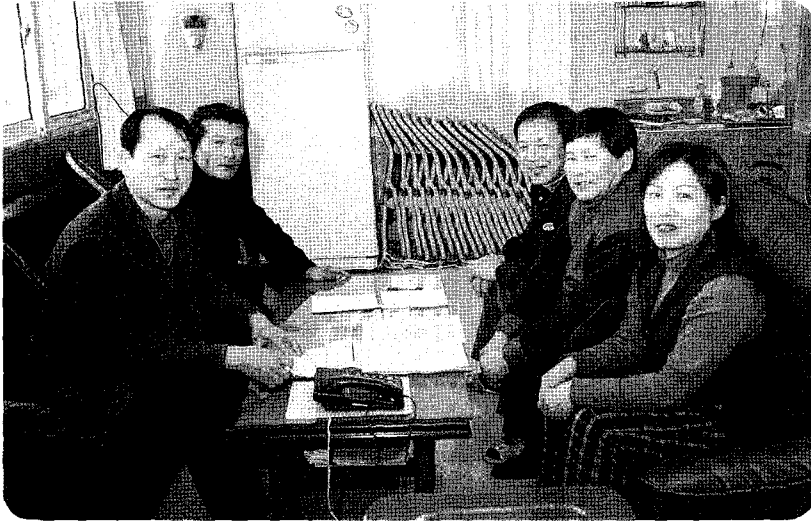
종돈, 약품, 기자재, 출하 또한 마찬가지다. 회원 혼자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단가로 지부에서 계약하여 구입하고 있다. 그래서 해남지부 29명 모든 회원농가들은 지부를 통해 같은 종돈, 같은 사료, 같은 약품, 같은 기자재를 사용하고 같은 곳으로 출하한다.

"어느 곳보다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원들이 지부를 이용합니다. 규모있는 양돈농가들은 이미 지부에 스스로 가입했고, 영세한 양돈농가들도 지부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기자재, 약품 등을 구입하려 지부에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농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따로 수수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이경태 부지부장의 말이다.

브랜드화로의 전진

해남지부는 올해 2005년부터 '땅끝포크'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사료', '종돈', '사양'의 통일이 이미 이루어



◀ 좁은 지부사무실이지만 박주남 지부장과 회원들은 항상 지부를 방문하고 여러가지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답소를 나눈다.

져 있는 해남지부는 우수한 브랜드육 생산의 초석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브랜드육의 우수한 점을 검증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상표등록까지 끝냈다. 해남군의 구체적인 지원과 육가공업체의 선정이 아직 남아 있는 과제이나, 본격적인 홍보계획은 수립해 놓은 상황이다.

박주남 해남지부장은 브랜드화를 통해 회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생산단계를 벗어나 유통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늘려 회원들의 수익을 보태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박 지부장을 비롯 일부 농가만 시범적으로 황토 고구마를 먹인 '땅끝포크'를 생산하여 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반준비가 갖춰진다면 모든 회원들이 동참할 것이라는 것이 박 지부장의 자신있는 이야기다.

■ 청렴한 지부장의 역할이 지부 단합의 열쇠

해남지부가 많은 공동구매 사업이나 브랜

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의심없이 일심 단결하는 것은 현 박주남 지부장을 비롯하여 이정우 전 지부장(현 해남축협조합장) 등 역대 지부장들의 투명한 경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사료 등 공동구매시 공개입찰 등 철저히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일부 협찬금으로만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지부장에 대해 회원들은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다. 지부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는 단칸 컨테이너는 오히려 청렴한 지부운영의 상징인 듯하다.

박 지부장은 "공동구매 업체 선정시 개인적인 유혹이 없었던 것도 아니나, 가족같이 지내는 회원들을 속일 생각은 추호도 할 수 없다.", "가격, 품질 등 여러 조건을 비교해서 가장 회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선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 규제 완화와 분뇨처리 해소 노력

해남지부 박 지부장은 해남지역의 돈사 신



▲ 해남지부 박주남 지부장과 노정자 간사

설 및 증축이 너무 어려워 회원들의 애로점이 있다며, 최근 최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75억의 정부 예산을 유치하여 해남지역 분뇨공공처리시설을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공공처리시설은 농경지가 많은 해남시의 특성을 살려 액비와 정화처리 2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했다. 기존 23기에 달하는 액비탱크와 함께 공공처리시설이 운영될 경우 지역 양돈농가들의 분뇨처리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박 지부장은 믿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을 유치하고, 회원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회원들이 지부를 중심으로 가족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지부의 역할에 충실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다. **양도**

해남지부가 추천하는

「망끝포크」 돼지고기 맛을 아시나요!

「망끝포크」에는

- ①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저하시키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성인병 예방
- ② 전단력이 낮아 육질이 연하고 맛이 좋음.
- ③ 보수성이 높아 육즙보존 능력이 뛰어남.
- ④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가 적고, 비계가 찰짐.
- ⑤ 칼슘과 인 등 미네랄 성분이 풍부함.

